

[2026 아시테지 K-PANY 창작꿈밭] 돈옴단계 선정작 발표

‘2025 아시테지 K-PANY 창작꿈밭’ 씨앗단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2026 아시테지 K-PANY 창작꿈밭’ 돈옴단계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선정작품

순번	예술가	작품명	지원금(원)	비고
1	강*늘	상아와 알루 그리고	10,000,000	2027년 1월 중 30분 내외 쇼케이스
2	한*연	잼잼 ;-)	10,000,000	
3	나*****트	추구미	10,000,000	

※ 가나다순 정렬

■ 심의 총평

2025년 K-PANY 창작꿈밭 씨앗단계를 잘 마쳤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해로, 첫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참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창작자들이 모여 ‘다가오는 휴머니즘’이라는 주제 아래 몇 달 동안 함께 배우고, 사유하고, 실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의와 워크숍, 토론과 레지던시를 거치며 각자의 질문은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다시 묻고 기계적 움직임과 반복 속에서 새로운 감각을 찾기도 하고 아주 어린 존재의 눈높이에서 세계를 다시 구성해보려고 하거나, 이야기의 틀을 벗어나 촉각과 소리, 공간의 감각으로 접근한 작업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관습적 공연작업에서 벗어나 조금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관객들과 소통하려는 시도들이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씨앗전이라는 발표와 공유의 자리를 통해서 서로의 작업을 마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새싹토크는 그 지난한 창작자의 고민의 시간을 헤아려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진 결과물에 대해 그 변화의 과정을 이해하고 아낌없는 조언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동안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모든 창작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창작꿈밭은 빠른 결과를 요구하기보다, 작업의 뿌리를 단단히 하는 시간을 지향합니다. 토양과 씨앗이 만나는 시간, 서두르지 않고 생각을 고이게 하는 시간, 때로는 돌아가더라도 질문을 놓지 않는 시간 말입니다. 올해 역시 씨앗단계를 거친 작업들 가운데 몇 편을 선정하여 돈옴단계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싹을 틔운 작업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형식과 언어를 갖추어 가게 되길 기대합니다. 돈옴 단계에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도 이대로 멈추지 마시고 각자의 도착지를 향해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창작꿈밭에서 보낸 시간이 각자의 작업 안에서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창작꿈밭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대를 위한 예술의 토양을 묵묵히 일구어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 4일

아시테지 K-PANY 창작꿈밭 프로그램 디렉터 배요섭